

국내 첫 육지면 재배지 목포 고하도가 뜬다

(개량 목화품종)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 수탈의 역사 현장인 고하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고하도는 1904년 국내 최초로 육지면이 재배된 밭상지라는 의미와 함께 목포항에 목화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목포시가 전국 3대항 6대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고하도에 서린 아픈 역사를 재조명하는 스토리텔링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유달산~고하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 중이어서 이 같은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육지면 밭상지인 고하도 현지를 찾아 목화에 얽힌 의미와 상징성을 살펴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 등을 짰다.



고하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적지 모퉁이 주변에 세워진 '조선육지면밭상지(朝鮮陸地綿發祥之地)' 기념비.



목포시가 지난 2013년 고하도에 조성한 목화밭 전경. 오른쪽 위는 만개한 목화꽃.

1902년 목포 영사로 부임한 와카마쓰 1904년 첫 시험 재배 성공 2013년 목화밭 조성...육지면 재배 111주년 기념 내달 국제회의 해상케이블카와 연계 스토리텔링·체험 행사 등 관광상품화 필요

◇'육지면 밭상지' 의미와 상징성=행정구역상 목포시 달동인 고하도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을 격파한 이충무공이 함선 정비를 위해 107일간 주둔한 전략요충지였으며 동시에 일본인에 의해 국내 최초로 육지면이 시험 재배된 육지면 밭상지로, 역사적 관점에서 '양날의 칼'의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목화는 문익점이 북통에 숨겨 들어온 재래면(아시아면)과 개량 품종인 육지면으로 나뉜다. 재래면은 섬유가 짧아 방직원료로 부적합한 반면, 육지면은 섬유가 길고 굵어 강하고 질겨 광택이 있는 게 특징이다.

국내서 육지면 재배는 1904년 목포주재 일본 영사 와카마쓰 우사부로(若松虎三郎)가 고하도에서 시험 재배한 것이 효시다.

1902년 5월 목포 영사로 부임한 와카마쓰는 같은 해 7월부터 목포 인근의 면화재배 상황을 조사했다. 그가 1903년 1년 동안 기후조건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맑음 264일, 구름 60일, 비 36일, 눈 6일로 육지면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간인 5월~10월까지 목포지방의 경우 평균 기온이 21.7℃로 조사됐다. 면화 성장기인 7월은 27.8℃, 8월은 30.6℃, 9월은 29.4℃로 높아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기후·토질 등 생육환경 면에서 고하도가 적지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 농무성으로부터 미국 종 등 면종자 13종을 교부받아 아미자키 도사부로(山崎藤三郎)에게 위탁해 시험재배에 들어갔다. 당시 목포에는 266세대 1045명의 일본인이 거주했고, 고하도에는 20호에 달하는 주민들이 면화를 재배하고 있었다.

시험 재배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906년 면화재배협회가 창립되고 면직 시험장(현재 목포시청 자

리)이 설치됐다. 당시 고하도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생산된 면화가 국내 생산량의 30~40%를 차지할 만큼 번창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면화는 주로 무안·해남·군산에 건립된 면 생산 공장을 거쳐 전량 일본으로 수탈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로 인해 목포지방은 '삼백(三白-목화, 소금, 쌀)의 도시'로 전국에 명성을 떨쳤고, 목포항에 물동량이 늘면서 전국 3대항 6대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고하도(달동 780~18번지) 이충무공 유적지 모퉁이 주변에는 '조선육지면밭상지(朝鮮陸地綿發祥之地)'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면화장려 30년 기념회가 1936년에 건립된 것으로, 비 뒷면에는 '명치37년(1904년) 목포주재 일본 영사 若松虎三郎씨 此二初 메テ 육지면 경작 스'라고 새겨져 있다. 이 기념비는 종전 이후 방치되어 오다가 2008년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인정돼 다시 세워졌다.

목포시는 2013년에 달동 863번지 일대 2312㎡에 목화밭을 조성해 육지면 시험재배 109년 만에 고하도에 면화의 꽃이 다시 피기 시작했다.

시 관광과는 조선육지면밭상지 기념비와 목화밭을 관광코스로 지정하고 인부 3명을 고정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

◇ 관광 상품화 방안은=이 같은 역사적 상징성을 배경으로 고하도를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공교롭게도 나카노 신이치로(長野慎一) 교수다. 현재 대동문화대학 명예교수인 그는 한국 출신으로 일본에 귀화한 인물로 육지면 밭상지 고하도에 대한 방대한 자료 수집과



본지가 나가노 교수를 통해 단독 입수한 와카마쓰 우사부로 목포주재 일본 영사가 거주했던 사택의 모습. 오른쪽 위는 와카마쓰 영사.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나가노 교수는 "고하도에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21세기 목포가 살 수 있는 길은 관광에 있다"면서 "육지면 첫 재배지라는 상징성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관광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고하도에 다수 분포된 무화과 밭이 예전에는 모두 목화밭이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목포시가 그 손해를 보전해준다면 대단위 목화밭 조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목화에서 실을 뽑아 면을 생산하는 과정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완성된 면 소재 제품을 판매하는 기념품판매장 등을 설치한다면 이색적이고 독특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해상케이블카와 연계시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목포시도 고하도에 얽힌 역사적 상징성을 재조명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 관광과는 2015년 고하도 육지면 재배 시작 111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회의 개최할 계획이다.

9월말로 예정된 이번 국제회의에는 일본에서 에토 세이시로 중의원 의원, 와카마야 요시부미 전 조일신문 주필, 서울 주재 일본 특파원 등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김유배 성균관대 명예교수, 한국 측 대표로는 라종일 전 주일대사, 김정현 서울대 명예교수, 김충식 가천대 교수 등이 참가한다.

박용을 시장은 "고하도의 역사적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육지면 밭상지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관광이벤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유 주신 분=김장흥 전 목포시 시기관, 김만수 학예연구원)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 개막 앞두고 사전 행사 27~30일 다채로운 공연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 홍보를 위한 프레 목포진 사전행사가 지난 16일 목포진 역사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60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목포진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목포진에 대한 관광 문화적 가치를 예술축제로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 됐다.



사전행사는 기예무단의 목포진 수군교대식 재현, 스페인 인형극단 노마드 씨어터를 비롯해 독일라이프치히 국립오페라 출신인 소프라노 정별님, 극단갯벌, 춤꾼 정해란, 목포경기소리모임, 만호동풍물패 공연으로 진행됐다.

목포 최초로 목포진 수군교대식 과정을 기예무단이 재현해 시민들이 600년 만에 목포진의 역사를 체험하는 볼거리를 제공, 눈길을 끌었다. 수군교대식은 목포진 수군무예재현, 수군교대타고, 임무보고식, 순장패전달, 수군례, 임무교대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제15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목포시내 차안다니는 거리, 로데오광장, 오거리, 목포진, 근대거리 등지에서 총 80여 종목이 넘는 공연과 행사를 펼쳐진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평화광장 수역 갈치낚시 목포시, 허용 대책 마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항계 내 어로행위금지를 고시함에 따라 목포시가 평화광장수역 갈치낚시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수협법에서 정한 법적 어업인 단체인 삼학어촌계 주관의 평화광장 수역 갈치낚시제행사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해상안전과 항만질서유지를 위해 항계내의 어로행위 금지를 고시하고, 낚시어선의 개별적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질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호남예술제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작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미술부문 최고상 | 2006년 제51회-임술기(비야중3), 김민희(광주여고2) | 2007년 제52회-조은지(전남중3), 김해주(광주여고2) | 2008년 제53회-김재현(일곡초2), 김민정(광주중앙초4), 신재민(광주중앙초5), 정소리(전남중3), 이은주(전남여고3) | 2009년 제54회-이호현(동림초2), 김세연(광주대부실초3), 정은재(신암초5), 이주희(광주경신중2), 진재영(현당고2) | 2010년 제55회-김준서(마지초1), 임하리(순천남초2), 박지현(광주송원초3), 이세림(광주중앙초), 이가영(일곡중2), 박상아(광양제철중3), 노하은(여수여고2), 김다영(호남상곡고2) | 2011년 제56회-최원창(조남초1), 박가은(유덕초3), 이시우(매곡초5), 전하주(광주북성중2), 범지선(수피아 여고2), 조아리(대성여고3) | 2012년 제57회-이예원(고실초1), 조은송(광주송원초3), 김민정(장덕중3), 정윤미(삼례시오여중3), 이인혜(광주여고1) | 2013년 제58회-성세경(금당초1), 권유선(광주계림초4), 정재윤(광주송원초6), 강민지(광주동성여중3), 정지윤(광주여고1), 박해령(조대여고2) | 2014년 제59회-정윤실(광주송원초1), 김예린(광주계림초4), 정다연(문남초5), 정다연(대성여중2), 문지윤(장덕중3), 윤화인(전남여고2), 박해령(조대여고2) | 2015년 제60회-김은서(광주송원초2), 정오훈(장덕초3), 김민지(서광초3), 천미성(용두중3), 오승하(삼무고2), 박산영(광주여고2) | 2006년 제51회-김성희(광주팔곡초5), 박주연(동아여중2), 김지수(인현청량중3) | 2007년 제52회-조혜민(광주송원초2), 김하연(동아여중3), 정다윤(용암고2) | 2008년 제53회-김민영(유안초4), 이주희(동아여중3), 한유나(대광여고2), 신미희(보문고3) | 2009년 제54회-최지윤(광주송원초1), 송상혁(송의중1), 백재원(인양여고3) | 2010년 제55회-박동현(두암초4), 조은(광양동초4), 황현웅(광주송원초5), 김소연(동아여중2) | 2011년 제56회, 차진우(영주초4), 김유진(광주송원초6), 김민빈(경신여고3), 김민정(경신여고3) | 2012년 제57회-김남현(광주송원초4), 심현지(문정여고3), 차니연(삼일여고3) | 2013년 제58회-전유민(유덕초4), 손상원(광주삼육초5), 정소영(대성여고3) | 2014년 제59회, 이성재(광주송원초4), 박민유(광주송원초6), 류강희(여도중3), 신해경(금호중앙여고3) | 2015년 제60회-김지우(광주송원초5), 정지윤(동아여중3), 공해지(광주정덕고3) ※수상당시 학교명과 학년을 표기하였습니다.